



국립극단  
70

여기  
연극이  
있습니다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공연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lab@ntck.or.kr

# 발가락 육상천재:

국립극단 청소년극  
2020 발가락 육상천재

작  
김연주

연출  
서홍식

공연 기간  
2020.10.30(금) - 2020.11.22(일)

공연 장소  
백성희장민호극장

주최/제작  
국립극단

그림. 김성제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소장)



# 시 회 자 의 이



## 인물 소개

변호준 (남, 12)

자갈초 육상부 전 1등. 관심 받는 게 좋다. 자기는 관심 받아 마땅하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다. 땀을 쳐서라도, 똥을 싸서라도, 침을 뱉어서라도 관심을 받고 싶다. 달리기를 잘해서 육상부의 독보적인 1등이었다. 하지만 전학생 박정민에게 1등을 뺏긴 뒤로 달리기가 싫어졌다. 우사인 볼트와 친하다(고 주장중이다).

“등을 보고  
달릴 바에  
안 달릴래.”

“난 다 이길 수  
있어.”

박정민 (남, 12)

자갈초 육상부 현 1등. 2개월 전에 전학을 왔다. 타고난 피지컬과 스포츠맨 정신까지 갖춘 완벽한 전학생.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자갈초에 오고 처음으로 1등을 해본다. 육상부 아이들에게 육상천재로 불린다. 지루한 동네로 전학을 와서 걱정했지만 육상천재란 새별명이 마음에 든다.

김상우 (남, 12)

자갈초 육상부 3등 어쩌다 2등. 엄마의 초밥집을 친구들의 아지트로 쓰고 있다. 엄마의 초밥집이 장사가 되지 않아 팔릴 위기에 처했다. 초밥집을 지킬 방법을 찾고 있다. 초밥집 아들답게 회 뜨는 법을 잘 알고 있다. 1등만 해봤다는 정민이가 솔직히 재수없다. 하지만 정민이를 질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동메달이  
꿈인 사람이  
어딴냐?”

“가끔 나도  
1등을 꿈꿔.  
웃기지?”

이은수 (남, 12)

자갈초 육상부 꼴찌.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 육상부를 하고 있다. 사실 공놀이가 더 재밌다. 친구들한테는 1등은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자신도 정말로 그런 줄 알았지만 막상 출발선에 설 때면 만약에 내가 1등 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한다. 애들의 맞장구를 쳐주기 위해 “맞아. 맞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맞아. 맞아! 웃겨.”

인어 (남, 12)

머리는 물고기, 몸은 사람의 형태. 상상하던 인어와 달리 썩 아름답지 않다.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쉽게 주눅 들지 않는다. 특유의 포스가 있다. 그렇다고 멋있는 포스는 아니다. 허당 같아 보이지만 절대 만만하지 않다.

“뭘 봐.  
인어  
처음 봐?”



바다의 짙은 자갈초등학교의 유일한 운동부로 육상부가 있다. 남자 육상부에는 독보적인 1등 호준, 2,3등만 아슬아슬하게 하는 상우, 맨날 꼴찌만 하는 은수가 있다.

정해진 등수대로만 흘러가던 육상부에 큰 지각변동이 생긴다! 준수한 외모, 타고난 피지컬, 스포츠맨 정신까지 갖춘 전학생 정민의 등장 때문이다. 정민이가 육상부의 새로운 1등이 되면서 육상부는 소란스럽다. 육상부의 소란을 비웃으며 호준은 더 이상 달리지 않는다. 학교 신기록을 세워 기세등등한 정민이를 본 호준은 자신이 인어에게 발가락을 잡아먹히는 바람에 달리지 못한다고 육상부 아이들에게 말한다. 인어라는 말에 솔깃한 육상부 아이들은 호준을 앞장세워 호준의 발가락을 잡아먹은 인어를 잡으러 짙은 바닷길로 향한다.

At the Pebble Elementary School where you always get a whiff of the salty sea breeze, there is only one school sports team, the track and field team. In the team, Hojun has always been the best by far, and Sangwu the second or third, and Eunsu the last. With no changes to their rank, everything has been business as usual until someone transfers to their school: Jeongmin. He is good-looking with inborn athletic abilities, not to mention being a great sportsman.

When Jeongmin becomes the number one in the school track and field team, things become topsy-turvy. Belittling his teammates' reaction, Hojun decides not to run anymore. Seeing Jeongmin bragging after setting the new school record, Hojun tells the track and field teammates that he can't run anymore because a mermaid ate his toes. Intrigued by his story, everyone in the team heads to the beach with Hojun to catch the mermaid that ate his toes.

# 호준은 12살



〈발가락 육상천재〉는 〈영지〉에 이은 국립극단 청소년극 12살 프로젝트의 2탄입니다.

이야기는 2017년 겨울, 마을버스에서 만난 친구의 통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노래방 갈까 내가 달걀 한판 준비할게 달걀 30개 다 먹으면 우리 노래 엄청 잘 할 거 같지 않냐 완전 재밌을 거 같지 수올 어때 아 학원가야 돼 너는 안돼 그럼 목욕은 아 그래그래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20년 가을, 호준의 통화로 연결됩니다.

#아 볼트형 우리 언제 자메이카 통다리 먹자 내가 살게 내 발가락이 젤 길지 맞아 보통 발가락이 아니란 거잖아 그치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김상우, 이은수, 박정민, 000.

지금 12살인, 12살을 잃어버린, 12살을 지나 온, 12살을 찾고 있는, 12살을 만들어 준 분들과 이제 만나고자 합니다. 아 볼트형도 같이.

음 음 음...

2020년 10월,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드림

# 12살 이야기



# 출연진 소개



이은수 Lee Eun-su  
김기현 Kim Ki-hun  
데뷔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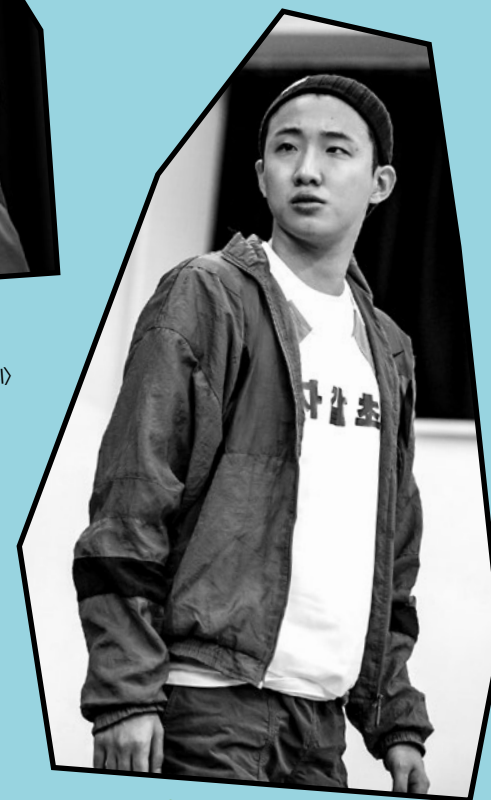
변호준 Byun Ho-jun  
임모운 Im Mo-yoon  
〈온전한 밤〉 〈갈망질망하다가 내 이럴줄 알았지〉  
〈나에게는 얼굴을 쓰다듬을 손이 없다〉



김상우 Kim Sang-wu  
류석호 Ryu Seok-ho  
〈분만실〉 〈하늘로 간 청춘팔〉 (연희음악극)



인어 Mermaid  
박창욱 Park Chang-wook  
데뷔작



박정민 Park Jeong-min  
홍사빈 Hong Sa-bin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글라이더〉 〈최후만찬〉 〈동네3-  
운명의 요구〉 〈한 밤의 사람들〉 (낭독극)

# 만드는 이야기



음~

특별해지고 싶다. 잘나고 싶다. 뛰어나고 싶다. 누구나 한번쯤 가져봤을 욕망에서 출발했다. 시간이 흘러도 이 욕망은 형태만 변할 뿐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특별하고 잘나고 뛰어나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나를 단번에 알아봐준다는 것이다. 나를 설명하기 쉽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나보다 뛰어난 존재가 나타난다면? 그때부터 무엇으로 나를 설명해야 할까?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내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말들이 필요해진다. 필요에 의해 뱉어낸 말들에는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 난장판이 된다. 난장판 속에서도 거짓과 진실 그 어느 것이라도 잡기 위해 손으로 한 움큼씩 쥐어본다. 하지만 약 올리듯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간다. <발가락 욕상천재>는 뭐라도 잡기 위해 한 움큼 쥐어보는 12살의 꿈지락거림에 대한 이야기다. 이 꿈지락거림은 평생 하게 될 사투다. 그 사투의 첫 스타트에 12살 남자 아이들이 서있다.

작가의 글 / 작가. 김연주 Kim Yeon-ju

주요작품

각색 <자전거도둑 헬멧을 쓴 소년>

작·연출 <육시내고향> <양질의 단백질>

# 템포서, 이번엔 육상부 코치!

역병의 시절이다. 연습동 입구에서 마스크를 한 채 체온을 재고 연락처를 남기니, 노란 띠를 채워준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모두들 하얀 마스크를 한 얼굴 아래로 저마다 손목에는 노란 팔찌들. 묘한 일체감이었다. 어떤 감사의 마음마저 들었다. 이제 연극을 다시 시작하는구나. 무대에서 작품을 볼 수 있구나.

## #. 레슬링, 펜싱, 그리고, 육상? 숨 막히는 연습실에 마스크를 씌우다.

마스크를 끼고 연습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특이한 경험이었 듯해요. — “학교에서 연기수업을 할 때 늘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표정을 보지 못해서 어떻게 연습하나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배우들이 힘들까봐 걱정이 됩니다. 격하게 움직이다가 숨 차 할 때는 미안하고요.” — 그럼, 이 작품 역시 이전 연출 작품처럼 스포츠연극, 신체연극인가요? 레슬링, 펜싱, 줄타기 등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작품 제목에 “육상”이 들어가던데요. — “이번에는 안전한 연극입니다. 세트에 높은 부분이 있는 것을 빼곤, 하하하. 육상부원들이 소재인 건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요. 사실 제가 연출한 청소년연극이 너무 역동성과 에너지만 강조하고 있지 않았나, 성찰도 좀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템포와 재미를 놓치지 않지만, 조금은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있는 연극을 만들고자 하고 있죠.”

## #. 템포, 움직임, 잔재미. 큰 거 안 바라고 무언가 하나만이라도 간직하길. 주변인들의 시선으로 중심을 바라보다.

오랜만의 청소년극 연출이신데, 공식 질문 드릴게요. 서충식에게 청소년극 연출이란? — “일단 청소년극 연출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나이나 경험의 차이 때문에, 그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작업하는 게 아니기에, 성인극할 때보다 조심스럽게 돼요. 아냐, 위촉된다... 소심해진다? 연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 거의 처음으로 극장을 찾은 이들도 있기에, 이런 귀한 기회를 망치지 않나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어린 관객들이 지루하지 않을 템포를 강조하고요. 대사 위주의 연기 말고, 움직임을 많이 넣으려고 하고, 또 여러 시청각적인 요소들, 음악, 세트, 미장센 따위에 공을 들입니다. 그래도, 그걸 관객들이 다 따라갈 수는 없겠죠. 저와는 다른 시간대의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작업할 때마다 목표는 공연을 본 청소년 관객이 그 관

안에서 무언가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큰 거 안 바라고 무언가 하나.” —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의 작품은 모두 재미가 있어요. 청소년연극이 아닌 국립극단 작품들도 경쾌하고 발랄합니다. 그 유머의 동인이 따로 있나요? —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연극 작품은, 결국 연출의 성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작업방식인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잔재미를 좋아하는 듯해요. 어릴 때부터 말로 어렵게 풀려가는 것 보다는, 그냥 재미있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덕분에 어려운 고전들을 하는 선생님과 선배님들과 많이 작업을 하지 못하고 따로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든 극단 “주변인들”인데, 이름이 좀 그렇지요? 원래는 작고 소외된 것들을 돌아보자는 의미로 지었는데, 지금 보니 영어의 “아웃사이다”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여튼 그렇게 재미를 추구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제가,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관객으로서는, 진지한 연극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만드는 것과 달리... 하하하.”

## #. 어쩌면 초등학교 9학년? 12살의 세계와 제대로 만나고 싶다.

이번 작품 얘기를 해볼까요? 예전 작품들은 해외연극이라는 면에서 검증받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엔 젊은 작가와의 신작인데다 예전보다 많이 어린아이들이 등장인물이잖습니까? — “작품을 처음 봤을 때 마음에 들었어요. 환타지와 리얼리티가 잘 섞여있고, 제가 좋아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연극 만들 때는 늘 수정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소심해서, ㅎㅎ, 작가한테 원하는 바를 잘 얘기하지 못하는 편인데요. 왜냐면, 애써한 작업인데 이런저런 요구가 더해지면 힘들어하실까봐. 이번 작가님은 시원시원하게 잘 받아줘서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아주 쿨하세요. 그런데, 등장인물들이 초등학교생인 건 아주 힘듭니다. 제가 명색이 연기선생인데, 그냥 12살을 모방하는 것을 벗어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배우들한테 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지난번 초등학교생들이 모니터를 했을 때 배우들이 초등학교 9학년 같다는 평을 들은 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템포, 템포, 하고 채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초등학교 5학년 또래가 흥미있고, 재미있게, 1시간 동안 지루함 없이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 이번 작품도 재공연이 될까요? 이전 두 작품처럼 지방공연도

많이 가고. 그때 선생님과 했던 맛집 기행이 기억이 납니다.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같이 맛있는 것을 먹고 행복해져야 한다고 했던 말씀도요. — “그랬던가요? 전 언제나 우리가 만든 연극이 보다 다양한 친구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건 완성된 작품을 보고 난 후 관객들의 반응과 전문가들의 평가에 달린 거니까. 모를 일이지, 허허.”

## #. 보통의 연극, 관객의 연극, 스스로 게으른 연출가라고 칭하는 사람. 작품의 완성도만큼 중요한 연습실의 분위기를 위하여. 모든 참여자의 팀워크로 결과를 이룬다.

연출가로서 염두에 두는 연출방식이나 원칙이 있다면? 연출할 때 책상머리에 붙여놓는 글 같은 거 있으세요? — “그런 거 없습니다, 하하. 요즘 떠오른 생각인데, 인간이 다음과 두 종류가 있다고 쳐요. 말하고 사고하는 사람과 사고하고 말하는 사람. 그렇다면 전, 아무래도 말하고 사고하는 쪽인 거 같아요. 생각 없이 저지르는 스타일이랄까. 그래서, 늘 좋은 스태프를 곁에 두려고 해요. 지금도 작품 해석에 김옥란 드라마터그님, 움직임과 장면을 만들어 주신 남궁호 선생님, 그리고, 각 파트의 좋은 조력자가 애써주고 계세요. 협업을 중시한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게으른 연출이죠, 뭐. 그리고, 배우들에게는 많은 자유를 주는 스타일. 이것저것 해보라고 많이 시키죠. 예전에는 능률적이지 않다고 배우들이 불만도 있었는데, 이번 배우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작업했죠. 젊은 배우들일수록 자유를 주는 걸 어색해하지 않더라고요.” — 담당피디께서 얘기하기를 선생님이 연출을 하면 어떤 편안함 같은 게 있다고 해요. 스태프들은 연출가를 어려워하는 게 보통인데, 선생님은 작업할 때 많은 스태프들이 좋아하는 연출가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사실 힘들어해요. 제가 결정장애거든요. 하하. 전 제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서, 제 한계를 알고, 동료들의 도움으로, 그런 팀워크로 연극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품의 결과만큼 연습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즐겁게 연극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거. 그리고, 그 결과를 관객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아마 특별한 연극 보다는 보통의 연극, 관객들이 불편해하기 보다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을 추구합니다. 준비과정도 각 파트의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해주시면, 저는 연기선생이라는 경험이 좀 있기에 배우들의 연기를 많이 봐주는 정도랄까. 그것도 배우들이 많이 찾아서 가져오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대부분이구요.”

## #. 따뜻한 사람들을 통해 만난 순수한 관객들. 있을 수 없는 초롱초롱함. 마스크 너머의 눈동자. 흔치 않은 기회. 오늘도 청소년연극을 만들고 있다.

청소년연극에 대한 인연 같은 게 있을까요? 이렇게 다양하게 청소년연극을 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어린이연극에는 좀 있지만. — “대학에서 아동청소년연극 전공학생들의 수업 중에 순회공연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연출로서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공연하는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경험이 컸어요. 일단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따뜻한 게 좋았고, 공연하러 가서 만나는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들. 그 어린 관객들의 즉각적이고, 순수한 반응들이 흥미로웠어요. 좋고 싫고, 재미있고 없고를 바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공한 분야는 아니었지만, 그런 면들이 저를 계속 이쪽으로 이끌어난 듯합니다. 다른 작업보다 즐겁게 작업할 수 있는 분위기와 직설적이지만, 순수한 관객들을 만나는 기쁨이랄까.” — 그 인연이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를 통해서 발전된 거네요. — “그렇죠. 학교에서 작업한 것들을 연구소에서 발전시키는 작업이 시작이었죠. 그래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애쓰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중간에 끼어든 것 같기도 해서...” — 처음에 마스크 얘기도 했지만 지금이 코로나 시대라고, 예전과 좀 다른 분위기잖아요. 공연계야말로 폭격을 맞은 셈이고... 선생, 교사로서 청소년들을 만날 텐데 요즘 느끼는 감회 같은 게 있으세요? — “마스크 때문에 서로가 얼굴 전체를 볼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서로의 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면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는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이어지긴 말은 생략하기로 한다. 요약하면, 혹은 시나 코로나19의 방역단계가 높아지면 관객 없이 공연을 해야 하므로, 촬영을 염두에 둔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배우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할 방법부터 시작해서, 연극만이 보여줄 수 있는 효과와 미장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놓으라는 얘기까지. 갑자기 그가 고민하는 게 배로 늘어난 듯 했다.

오옷! 절대! 안 돼요! 드디어, 극장에서 공연을 보고 싶단 말예요!

다시 역병의 수위가 높아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문원섭

무대감독 등의 역할로 서충식 연출가의 〈레슬링시큰〉, 〈룩산느를 위한 발라드〉, 〈국물 있사옵니디〉를 함께 작업하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끼니를 함께 했다. 현재는 다양한 공연예술분야에서 다양한 역할로 밥벌이를 하고 있다.



# 나와 우리의 열두 살에게

배우 인터뷰 / 글: 장경진(공연칼럼니스트,  
월간 <여덟 갈피> 콘텐츠 디렉터)  
일자: 2020년 10월 15일  
장소: 국립극단 회의실1

## #날 닮은 너, 다시 만나서 반가워

**모운:** 호준의 허세 부리는 모습이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웃음) 나도 내향과 외향 중에서는 외향 쪽에 가깝다. 당당하려는 면도 있고.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남자 애들은 여섯 명이 전부였다. 당시 비만이었던 나는 괜한 자각지심 때문에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가 있었다. 잘 해보고 싶는데 호준이처럼 어긋나는 일들이 많았다.

**석호:** 배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리딩 할 때도 나는 늘 상우였다. 나서서 무언가를 주도하거나 주목받는 편이 아니었다. 개성이 뚜렷하기보다는 튀지 않는 쪽이랄까. 내 성격과 잘 맞지만, 사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이런 평범한 인물이 연기하기는 가장 어렵다.

**기현:** 소심한 은수와 나는 완전히 다르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삶의 태도가 비슷하다.

**사빈:** 자신감이 넘치는 정민에 비해 나는 주목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면 연출님의 코멘트가 있고, 힘을 빼면 넘어갈 때가 있다. 그런 걸 보면 정민의 ‘재수 없음’과 ‘잘난 척’이 내재되어 있는 것도 같다. (웃음) 모든 인물이 닮은 듯 닮지 않았다.

## #너의 열두 살이 궁금해

**기현:** 열두 살 때 부모님과 떨어져 외국에 있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도 많았지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무언가를 했다. 그런 후에는 전원 꺼진 것처럼 자고. (웃음)

**모운:** 지금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른 일을 해도 그 생각이 한쪽에 계속 남아있다. 그런데 열두 살 때는 놀 때만큼은 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사빈:** 나는 그때도 생각을 하는 타입이었다. 생각은 하는데 친구들한테는 아닌 척 하고.

**석호:** 그때의 나는 친구 고민이 많았다. 소외되는 게 싫고, 무리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것 같다. 호기심도 겁도 많았고.

**창욱:** 졸업, 코로나19, 오디션 낙방이 이어지는 시기에 오디션을 봤다.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불안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만 싶었다. 그런데 열두 살의 내가 지금의 나보다 어른스러운 면이 훨씬 많았더라. 모르는 게 많아도 행동의 정당성과 정의만큼은 뚜렷한 시절이었고, 순간에 집중하며 가장 살아있던 때가 아니었을까.

## #모두가 사랑을 위해

**사빈:** 극에서나 밖에서나 올해의 키워드가 ‘사랑’이다. 친구를 만나는 건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가 아닐까. 호준이도 사랑받고 싶어서 무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작품에 나오는 애들이 부럽기도 하다. 서로 되게 사랑할 것 같다.

**모운:** 스스로도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커가면서 사람을 사귀는 기준이 생긴다는 거다. 어릴 때는 상대에 대한 편견이 없고, 게임을 해도 게임 자체보다는 친구랑 같이 한다는 게 컸는데...

**기현:** 중학생 누나들이랑 친하게 지냈다고 친구들한테 제명당한 적이 있다. (웃음) 당시에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지 않다.

**창욱:** 그 시절에는 모두가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로부터 확인받고 싶어 한다. 그러다보니 원시적인 생존의 법칙 안에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끄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것 같다. 5~6학년 즈음이 사회에 입성하는 시기인 듯 하고. 군대에서도 이등병이 제일 각 잡혀있듯 이들의 사회화도 생각보다 FM일 수 있겠다 싶다. 우리 학교에서는 밥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 ‘식신’이라는 영예의 자리를 줬다. 정말 별 게 아닌 데도 그 작은 인정을 위해 나보다 훨씬 큰 아이를 이긴 적도 있다. (웃음)

**기현:** 힘의 논리에 의해 서열 아닌 서열이 정해지는 건 3학년 때부터였다. 그런 사회 안에서 나는 몇 번 째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아이들마다 다른 선택을 한다.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탑3에 들어가려는 애들도, 경쟁에서 빠져나와 두루두루 잘 지내겠다는 애들도 있다.

**석호:** 내 생각에 학교에서의 서열은 그룹별이고, 각 그룹 안에서는 성격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고 본다. 친구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관계니까. 어른의 시선에서 호준을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마음을 털어놓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다만 아이들이 좀 더 본능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앞서는 게 아닐까.



## #나는 왜 다를까?

**모윤:** 몸이 크다 보니 옷가게에 들어가는 게 너무 긴장이 돼서 한 번은 쓰러진 적도 있다. 자존감이 낮았던 시절이라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착이 강했다. 당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나만 없어”였다. 정말 필요하기보다는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니까. 원하지도 않는데 따라하고, 갖고 싶어 했다.

**석호:** 나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연기를 하다 보면 다양한 성격이 필요한데, 그게 나에게 없다고 느낄 때. 지금도 끊임없이 나는 왜 그런가를 생각한다.

**창욱:** 비교도 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일 수 있을까에 더 집중한 편이었다. 낙천적이라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지금의 선택들도 그런 편이다.

**사빈:** 한글을 3학년 때 뗐다. 부모님의 자유로운 교육방침 덕에 선행학습 대신 여행을 많이 했다. ‘남자다워야 한다’ 같은 강요 없이 러프하게 자란 게 감사하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비교나 경쟁에 대한 생각이 딱히 없었다. 한번은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 “네가 너그러운 스타일이 아니어서 남들 눈에는 재수 없어 보일 수 있다. 인정해야 된다.” 내가 원래 서라기보다는 환경이 나를 특별하게 만든 게 아니었을까. 그런데 자존감이 너무 높으면 남을 안 보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타인에 대해 잘 모르고, 알고 고 하지 않고, 경쟁의식도 없고.

## #나의 인어를 찾아서

**창욱:** 대본 처음 봤을 때 제일 먼저 한 생각이 ‘인어 누가 하지?’였는데 내가 하게 됐다. (웃음) 만화를 보면 주인공 옆에 마스코트 같은 캐릭터가 있지 않나. ‘열두 살 아이’라는 전제에서 캐릭터를 만들었지만, 관객들이 인어를 설레고 신비롭고 만나보고 싶은 존재로 느낀다면 좋겠다.

**사빈:** 홍사빈에게 인어는 열두 살에 사랑받고 싶었던 또 다른 나의 모습이고, 정민에게는 믿겨지지 않고 친해지고 싶지 않은 존재다.

**모윤:** 호준에게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줄 수 있는 존재다. 분신이자 또 다른 자아일 수도 있고. 임모윤이 보는 인어는 깨끗한 속마음이 아닐까.

**기현:** ‘솔직했다면 다섯 번째 멤버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석호:** 아이들의 속마음이 뭉쳐진 것이라고 본다. 상우에게는 기회이자 꼭 잡아야 하는 것.



16

## #솔직하지 못해 미안해

**창욱:** 크게 엇갈린 것도 아닌데 친했던 사람일수록 한순간에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오히려 서로가 안 친했던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상대가 다가와주길 바라는 마음이 이기적이라고 느끼면서도 나는 다가갈 자신이 없다. 멀리서 인스타그램 ‘팔팔’하면서 응원하는 관계들이 나이 들면서 점점 생긴다.

**모윤:** 못난 말이지만, 나보다 잘된 친구를 축하해주지 못한 적이 있다. 자존심 때문에 그랬다. 원래도 친했던 친구였으니까 먼저 얘기를 했다면 좋을 걸. 반대로 잘못을 사과해줬다면 가장 친하게 지냈을 것 같은 친구도 있다. 지금의 나는 인간관계에 있어 정말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얘기를 잘 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하니 오히려 친구가 더 없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기현:** 솔직하게 나서서 관계를 풀어나가면 될 거라고 믿어온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안 보지 뭐’ 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관계가 많아진다.

**석호:** 솔직함이란 용기와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어릴 때 좋아하는 친구에게서 고백을 받은 적이 있는데, 좋으면서도 거절한 적이 있다. 창피해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상대의 마음도 잘 받았다면 어떤 추억이 남았을까.

**사빈:** 후회를 하는 편이 아니다. 솔직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관계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솔직해지려고 노력한다.



## #이 순간을 기억하게

**사빈:** 공연을 준비하며 짧게라도 만난 열두 살 친구들이 있다. 그 친구들이 공연을 보고 해줄 말이 가장 기대되고 가장 몽클할 것 같다.

**기현:** 연습이 끝나면 모두가 땀에 흠뻑 젖는다. 거기서 오는 기분 좋은 쾌감이 있더라. 공유한 온도, 땀 흘린 공간에서의 기억이 앞으로 큰 힘이 될 것 같다.

**창욱:** 이번 기회를 통해 배우로서 숨통이 트일 수 있었다. 혹시 안 좋은 말이 들려도 크게 찢찢하지 않을 것 같다. 공연이 올라갈 때까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 공연이 열두 살 친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가장 궁금하다.

**석호:** 연출적으로는 후반부 인어 이야기가 놀랍지 않을까 싶고, 배우로서는 작품이 유쾌하고 발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모윤:** 거짓말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호준을 더 가깝고 안타깝게 느끼는 시간이었다. 청소년극을 <발가락 육상천재>로 처음 하게 됐다. 열두 살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텐션을 높이려고 우리끼리 공놀이도 참 많이 했다. 그렇게 한바탕 웃으며 놓고 나면 진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말한다. 우리 방금 진짜 12살 같지 않았어? 라고. (웃음)





# 너도 인어야? 너도 아가미 있어?

드라마투르크 김옥란

11살 ‘영지’를 떠나보내고 12살 ‘자갈초 육상부’ 친구들을 만났다. 국립극단 2020 청소년극 〈영지〉와 〈발가락 육상천재〉공연을 통해서다. 10대가 시작되는 11살, 12살 아이들의 이야기다. “불러오자 불러오자 심장을 불러오자.” “난 언젠가 세상에서 제일 큰 심장과 폐와 튼튼한 뼈를 훔칠 거야.” 〈영지〉는 주술로 가득 찬 공연이었다. 이제 막 자기 안에서 낯선 ‘나’를 발견하고 ‘나’를 불러내고 ‘나’를 대면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였다. 알을 깨고 나오는 존재처럼 작은 세계 안에 갇혀있었던 ‘나’를 꺼내 낯선 세계 속으로 밀어 넣는 의식(儀式)에 관한 이야기였다. 영지의 주술의 말은 이전 세계의 마지막 언어였을지도 모른다. 영지를 떠나보내고, 자갈초 육상부 친구들을 새롭게 만난다. 두 발을 굳게 땅에 붙이고, 한쪽 발로 힘껏 땅을 밀며 앞으로 달리는 아이들이다. 파도소리가 들린다. 허파 가득 숨이 들어온다. 아이들은 뛰고 또 뛴다. 심장과 허파 — 〈영지〉와 〈발가락 육상천재〉에 대한 단 하나의 이미지를 말하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 ‘사람 반, 물고기 반’ 인어 그리고 ‘아이 반, 어른 반’ 12살 아이들

“12살 아이들은 이 세계에서 인어와 같은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2020년 6월 12일 첫 번째 대본회의 때 나왔던 작가의 말이다. ‘사람 반, 물고기 반’ 반인반수(半人半獸) 인어의 모습이 마치 ‘아이 반, 어른 반’ 12살 아이들 모습 같다는 것이다. 〈발가락 육상천재〉에 인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5학년이면 5학년답게 굴어.” “맞아. 맞아. 유치원생도 안 그러겠다.” 달리기에서 1등을 빼앗긴 호준이가 정민이에게 심통을 부리자 아이들이 놀린다. 5학년이 되면 스포츠맨 정신도 있어야 되고, 질투 같은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은 상우네 초밥집 아지트에 모여 “역시 환타는 오렌지지!” 카, 소리를 내며 어른처럼 환타를 마신다. 그런데 어른들이라고 해서 모두 스포츠맨 정신을 가지고 있을까. 이 친구들이 말하는 어른들의 세

계가 오히려 판타지처럼 느껴진다.

육상부 1등이었던 호준이는, 이번 학기에 전학 온 정민이에게 1등을 빼앗겼다. 앞질러 가던 정민의 등을 본 후 호준이는 달리기 싫어졌다. 신발에 돌이 들어갔었다, 운동화 끈이 풀렸었다, 똥꼬에 쥐가 났었다, 평계를 대보지만 아이들은 믿어주질 않는다. 거짓말이 맞다. 그래도 호준이는 계속 거짓말을 한다. 육상 기록을 재는 날, 호준이는 발에 붕대를 감고 나타난다. 인어가 자기 발가락을 먹고 도망갔다는 것이다. 역시 거짓말이다. 육상 선수에게 유리한 긴 발가락을 가진 정민이에게 질세라 “길고 탐나는 내 발가락”을 인어가 먹고 도망갔다는 것이다. “우사인 볼트 형님이 나만큼 발가락 긴 선수는 못 봤다”고 허세를 부리며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하기도 한다. 물론 거짓말이다. 이 이야기는 호준이가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하는 이야기다. 누군가의 등이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으로 느껴질 때 호준이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어른이라고 해서 이 문제가 과연 풀기 쉬운 문제일까. 오히려 이 이야기에서 진짜 어른이 되고 있는 것은 호준이가 아닐까.

8월 28일 배우들과 함께 하는 첫 연습이 시작되었다.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예술교육팀이 모두 모인 전체 회의에서 호준이의 거짓말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나왔다. 호준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인물이다, 호준이의 거짓말은 본심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예술교육팀에서도 아이들이 말 못할 고민을 선생님에게 털어놓을 때도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은 가능해도 아이들의 마음을, 본심을,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때는 드물다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어떤 사건을 해결할 때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 무슨 일인가를 할 때에야 그 마음이 읽힌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호준이는 처음 알게 된 실패에 대해서 허세도 부려보고, 거짓말로 숨어보려고도 하지만, 결국 인어의 배를 갈라 내

장을 모두 꺼내고 파헤쳐진 빈속을 본 뒤에야 다시 달리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다. 호준이에게는 그 시간을 견디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아무리 경쟁 사회라고 해도 ‘1등 어른’이라는 것은 없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 자갈초 육상부 친구들이 만나는 인어 형과 볼트 형

“생선 대가리에 사람 다리”를 가진 인어는 호준이가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그런데 호준이의 인어를 모두의 이야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상우와 은수와 정민이다. 상우는 망해가는 초밥집을 살리기 위해서, 은수와 정민이는 아지트인 초밥집을 살리기 위해서 인어를 원한다. 인어를 잡아서 초밥을 만들어 팔 계획이다. 아이들은 인어를 원했다. 호준이가 거짓말하는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호준이의 인어 이야기는 믿고 싶었다. 호준이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있다. 호준이는 아이들이 아지트에 못 오게 할 때마다 우사인 볼트 형님처럼 친하다며 전화를 하며 나타난다. 상처 난 벌어진 마음 그대로가 아니라 ‘우사인 볼트 형님’이라는 강력한 반창고를 붙이고 아이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도 답답하다. 호준이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 호준이를 받아들이 수 없다. 호준이는 왜 ‘스포츠팀답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호준이의 거짓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데에는 아이들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호준이가 마지막으로 볼트 형님처럼 통화할 때 아이들도 나중에 자기들도 볼트 형님처럼 통화하겠다고 말한다. 모두 인어에게 발가락을 물리고 붕대를 감은 후다.

그런데 호준이는 왜 인어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일까. 호준이는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을 증명해줄 수 있는 인어가 나타나 기쁘지만, 아이들이 인어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는 또다시 거짓말로 잡아먹지 못하게 한다. 인어와 ‘아가미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인어는 말한다. “사람들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호준이는 동지가 나타나서 반갑다. “나 도야!” 인어도 호준이가 반갑다. “너도 인어야? 너도 아가미 있어?” 인어는 호준이를, 호준이는 인어를 지켜주기로 약속한다. 그러나 호준이는 인어를

지키지 못했다. 정민이는 호준이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인어도 호준이의 거짓말을 폭로한다. 인어는 배가 갈리고 내장을 모두 빼내고 텅 빈 속만 파헤쳐진 채로 남겨진다. 호준이는 인어의 파헤쳐진 빈속이 마치 자기 같다. 인어의 배를 테이프로 붙인다. 그리고 인어는 다시 살아난다. “뭘 봐. 인어 처음 보냐?” 까칠한 인어가 다시 살아났다. 제일 긴 발가락을 없애버린 상태에서 아이들은 다시 출발선에 서서 달리기 시작한다. 작은 자갈들이 부딪치면서 해안가 금빛 모래로 변해 반짝이는 것처럼 아이들의 마음이 다 함께 넓어지는 순간이다. 아가미와 허파와 땀구멍으로, 몸속의 모든 기관들을 움직여 숨을 쉬며 달리는 아이들을 응원하게 된다.

“12살짜리도 혼자 있는 순간이 있다. 자기를 다 비우는 순간을 바라볼 때는 아이나 어른이나 진지해질 수밖에 없다.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도 인생의 큰 변화다.” 인어를 해체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서충식 연출가는 12살 인생의 가장 진지한 장면을 주문한다. 거짓말처럼 시작된 인어 이야기가 12살 아이들이 치르는 진지한 제의극의 한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다. 김연주 작가의 ‘와사비 맛’ 블랙코미디는 장면 전환마다 들어오는 인어의 랩송으로 살아났다. 노래도 잘하는 배우들이 매번 즉흥으로 살려낸 장면을 김연주 작가가 감각적인 대사로 호흡을 정리해주었다. 마스크를 쓰고 연습을 하고, 줌으로 연결된 영상으로 남해초등학교 학생들과 오픈 리허설로 만났다. 마스크를 쓴 채 숨을 참는 긴 시간들이었지만, 지금은 무대에서 관객들과 함께 깊은 호흡을 나누는 시간이 어서 오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 김옥란 Kim Ock-ran

드라마투르크, 연극평론가, 극동대학교 연극연기학과 교수

연극 〈영지〉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레슬링 시즌〉 〈국물 있사옵니다〉 〈위대한 놀이〉 〈소설가 구보씨의 1일〉 〈채권자들〉 〈불날〉 외  
저서 《우리시대의 극작가》 《한국연극과 드라마투르기》 외  
평론집 《백도의 무대, 영도의 글쓰기》 《레드와 블랙》 외  
수상 2018년 여석기 연극평론가상, 2017년 노정 김재철 학술상, 2014년 서울연극인대상 스태프상(드라마투르기)

# 이것은 진지한 사건이다

교육감독 손서희

날 좋은 9월에, 개천을 끼고 있는 세월초로 배우들과 찾아가 청소년들의 안내로 동네구경도 하고 달리기도 하면 좋겠다 싶었다. 그리고 10월 초쯤에는, 예술교육팀이 남해초로 가서 같이 이야기를 만들고 학교를 쓰다니면서 인어의 흔적을 찾을 수 있겠거니 했다. 그렇지만 8월을 보내면서 결국 Zoom으로 연결하여 공연연계 청소년 워크숍을 시작하게 됐다. 국립극단 청소년극은 작품 창작과정에서 예술교육팀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만나면서 작품과 관련한 워크숍을 여러 차례 진행하고, 그 가운데 창작진이 청소년과 직접 만나 워크숍 활동을 함께 경험하거나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모처럼 서울이나 수도권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을 만나기로 했으니 바닷가 동네의 자갈초를 찾아가는 것처럼 양평으로, 남해로 가서 각 지역 청소년들과 여기저기 들쭉시고 다녔보자고 신났던 마음은 이제 눌러 두고 작은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 화면을 통해 경험했던 몇 가지 일들이다.

## 세월초, 남해초의 에피소드 세 개와 자갈초 이야기

경기도 양평에 있는 세월초 6학년 학생들은 등교수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각자가 집에서 한 화면씩을 차지하고 마주했다. 인터뷰 게임을 통해 각자 자신은 어떤 천재라고 볼릴 수 있을까를 묻자 화면에 재미있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줄곧 조용하게만 참여하던 ‘뜨개질 천재’는 일주일만에 완성한 분홍색 스웨터를 보여줬다. ‘노는방법 천재’의 트로트와 피아노 연주를 듣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쉽다. 20대 패션을 즐겨 입는다는 ‘패션 천재’는 올해 F/W에 코트가 유행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줬다. ‘그림 천재’는 자갈초 육상부 아이들이 낚시를 하고 있을 것만 같은 풍경을 그린 수채화를 가져와서 보여줬다. 각자 자신이 평소 진지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하는 중에, ‘팀킬 천재’는 거실에 있는 강아지를 안고 와서 화면 앞에 보여줬다. “애는 진짜 순해요.” 그러자 모두 입을 모아 얘기했다.

“겨울이다!(강아지 이름을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었다) OO이가 이겼어요.”

경남 남해초 연극반은 세월초와는 달리 교실에 모여서 워크숍에 참여했다. 학생들이 교실에 모여 TV와 노트북으로 예술교육팀의 얼굴을 보면서 활동을 하는 형식이다. 이 친구들은, 원격으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장면을 몸으로 표현해보자’라는 말만 듣고서도 알아서 척척 만들고 표현해냈다. 20~30분이면 한 편의 이야기를 똑딱 지어냈고, 그 이야기에 어울리는 교실 바깥 공간을 찾아 3장의 스틸 사진과 1편의 동영상으로 찍어오는 데에도 20분이면 충분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들을 ‘남해초 연극천재’라고 불렀다. 그렇게 4번의 워크숍을 끝내면서, 2주 후 오픈 리허설에서 〈발가락 육상천재〉의 공연팀과 온라인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했다. 청소년들이 공연연계 청소년 워크숍을 하면서 공연팀과 만나는 일을 즐거워하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독 남해초 연극천재들은 이렇다 할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것을 자기 스스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팀의 스웬그라고 해석했다. 이 연극반은 10월 말에 마을 도서관 개관에 맞춘 연극을 준비하고 있던 참이었다. 자신들도 배우이고 공연팀이라서, 저기 서울에서 다른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 팀은 그저 같은 일을 하는 동료일 뿐, 만난다니 반갑긴 해도 뭐 대단한 반응을 보일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들려주면 모두가 웃음 짓는 귀여운 에피소드이다. 그럼 이런 것은 어떤가? 모두가 모여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채팅창에 다른 친구를 향해 화를 내며 거친 말을 올렸다.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서 활동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모두 놀란 것은 사실이다. 담임 선생님이 따로 진정 시키려고 해도 이 친구는 쉽게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앞서 조별 활동 시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전체 활동으로 넘어온 것이다. 다툼의 내용은 자신이 게임 실력에 대한 놀림, 혹은 게임 상에서 자신이 나쁜 수를 썼는지에 대한 오해였던 것 같다. 수업 시간에

진행된, 모두가 모인 워크숍에서 갑자기 거친 말을 올린 행동에 대해서는 이후 담임 선생님이 바로잡아 주셨고 그 다음부터는 감정을 말끔히 정리하고 활발하게 참여했다는 점을 밝혀 둔다. 계속 워크숍에 진지하고 열심히 참여했던 친구가 화를 참지 못한 것은 그 친구가 온통 집중하고 있던 게임 실력(또는 게임 내 행동)에 대한 저평가나 오해 때문이었다. 돌발적인 행동에 대한 잘잘못은 별도로 두더라도 그게 학교 성적이 아니고 달리기 등수가 아니라서, 게임이라서 유독 편해질 이유는 없다.

세 가지 에피소드는 청소년들과 워크숍을 하면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화일지도 모른다.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다. 자갈초 육상부 아이들이 나란히 앉아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다. 인어가 낚인다는 말에 반신반의 하면서도 입질이 오는 순간 모두가 집중한다. 서로 편안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진지하게 달리기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자갈초 아이들 네 명은 일생 가장 긴장되고 진지한 모습으로 사람도, 물고기도 아닌 인어를 앞에 두고 서 있다.

## 진지한 사건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세월초, 남해초, 자갈초 아이들의 이야기에서 나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진지함이다. 강아지를 안아 화면 앞에 보여준 것은 다른 친구들처럼 나의 자랑거리를 찾기 위해 집중한 결과이다. 일주일 동안 작업한 스웨터나 예사롭지 않은 감각의 그림으로 친구들의 감탄을 불러내는 일에 진지하게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의 공연팀과 만나는 일에 대해 별것 아니라는 듯 반응한 것은 바로 이어 진행할 자신들의 공연 연습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공연에 대한 생각에 온통 골몰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모두가 모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를 낸 것은 잘 뜯어 보면 게임에 대한 자존심과 훌륭한 플레이에 대해 너무 진지하고 뜨겁게 생각하고 있어서였을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현실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는, 거짓말로부터 생겨난 인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자갈초 아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인어가 비취주는 내 속마음을 진

지하게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진지한 사건이다.

워크숍에서 일어난 흔한 에피소드에 너무 무거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재미있고 웃기고 귀여웠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자갈초 육상부 아이들의 매 순간이 진지한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말도 못하게 산만하고 시끄럽게 놀기도 하고 엉뚱한 소리에 어이가 없어 웃게 될 때도 있다. 그런 가운데서 호준이가 초밥집에서 등떠밀려 나갈 때의 표정, 등수가 언급될 때 순간 갈등하는 정민이의 모습, 온통 시끄러운 중에 발가락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은수, 난데없는 인어 애기에 반짝 하는 상우의 모습을 청소년 워크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은 것처럼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이야기의 세계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 호준이의 거짓말에서 시작된 인어 이야기를 다른 세 아이들과 함께 현실로 만든 것이, 서로 아웅다웅해도 그들이 자신의 속마음에 대한 진지함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 진지한 순간에 마주했기 때문인 것처럼 말이다.

공연팀에게 워크숍 참여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고 같이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이 친구들을 귀엽게만 바라보지 말자, 만나는 일을 진지하게 대하고 진짜로 대화를 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연팀은 정말로 진지하게 자기소개를 준비했고 꽤 시간을 들여 초대장과 리허설 영상을 찍었고 집중해서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만남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진지하게 곱씹으면서 다시 생각을 나누고 정리했다. 연출과 배우, 작가가 청소년들과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었듯이, 이제는 청소년들과 함께 자갈초 아이들의 진지한 사건을 진지하게 바라보려고 한다.



# 세월초 남해초 자갈초



## 세월초

〈발가락 육상천재〉 자갈초 육상부 5명은 각자 고민을 안고 세월초 조원천재들을 온라인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본심의 방으로 세월초 학생들을 살짝 초대했습니다. 5개의 본심의 방에서 나눈 대화와 조언을 소개합니다. (일부 대화는 이해를 위해 수정했습니다.)

### 조원천재들의 고민 상담



**“애들이 내 말을 안 믿어 줘. 자꾸 허세 부린다고만 하고.”**

\* 호준이의 본심의 방에서 윤구, 규혁의 조언

“나? 주로 배그(배틀 그라운드) 하지. 치킨도 여러 번 먹었고(1등) 레벨도 다이야야.”

“나는 허세 아니야. 나 배그 진짜 잘해. 야, 애들하고 친해지려면 지금처럼 게임 얘기해.”

“맞아. 애들도 게임 잘하는 애들을 더 좋아하지. 못하면 연습하고.”

“아니면 우리 겨울이 같은 강아지를 보여줘 봐. 그러면 친구들이 좋아할지도 몰라.”

**“꼭 1등을 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생겨.”**

\* 정민이의 본심의 방에서 현호, 정주의 조언

“안 불안하게 하는 법 알아요. 그냥 2등으로 있다가 중요할 때만 1등을 하는 거예요.”

“정주가 그림을 1등으로 잘 그려요. 반에 솔이라고 라이벌이 있어요.”

-아니라고! 나 아니야~ 솔이가 1등이야.”

“산에 가서 수련을 하고 오면 뭔가 깨달음을 얻을 거예요. 일단 엄마를 실망시키기 전에 ‘저 1등 못하고 2등 할 수도 있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게... 1등 안 해 봐서 모르겠어요, 잘.”



“예전에는 꼴찌라도 상관없었는데 요즘은 나도 1등 하고 싶어.”

\* 은수의 본심의 방에서 술, 현열의 조언

“그래? 나는 보상이 걸릴 때만 1등 하고 싶던데...”

-보상 안 걸려도 1등 하면 좋지.”

“꼴찌 하기 싫으면 육상부 그만하고 자기가 자신 있는 거 하면 되지 않아요?”

-연습을 하면 더 잘해지지 않을까요?”

“연습 안 하면 포기해야겠지. 연습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타고나지 못한 거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그만 뒀도...”

“잘하는 애들이 부럽고 질투 나. 근데 솔직히 말을 못하겠어.”

\* 상우의 본심의 방에서 수연, 현준의 조언

“속마음대로 애들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구나. 나는 너처럼 솔직히 말해야 할지 말지 그런 고민을 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한참 생각해 봤는데 들어 봐. (종이에 적어 둔 것을 보며) 우선, 모래 주머니를 발목에 차고 달려볼 것. 그러다 보면 힘도 길러질 거야. 나중에 모래 주머니 풀고 달리면 몸이 훨씬 가벼워져서 기록도 단축되고. 그 다음에 아까 엄마가 하는 가계가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을까 봐 고민이라고 했지? 그거는... 초밥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더 연구해야 돼. 연어를 두껍게 올리거나. 그리고 홍보를 더 잘할 것.”

“자갈초에 와서 처음 친해진 친구를 못살게 구는 녀석이 있어요.”

\* 인어의 본심의 방에서 엘림, 동희의 조언

“그치만 다른 애들하고 친해지고도 싶고? 근데 나라면 호준이랑만 놀 것 같아요.

-나는 친구를 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친구가 있다면 지금 나한테 있는 친구랑만 놀아도 좋지.”

“친구랑 사이가 멀어진 적은 없지만 싸운 적은 많죠. 규혁이는 거의 먼저 화해하자고 하는데, 아닌 경우 우라고 해도 그날 바로 화해는 해요.”

“어떨 때 싸우냐면, 서로 얘기가 안 통할 때? 그럴 때는 맨날 생각은 ‘들어주고 이해하자’ 하지만 막상 싸우면 그 생각을 잊고 계속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생각하다가 알았는데 나는 창피해도 남은 내가 창피한 거 모르니까 그냥 사과하고 친해져도 될 것 같아요. 이해돼요?”

# 남해초

남해초 이야기천재들은 <발가락 육상천재> 속의 키워드와 ‘남해에 인어가 나타났다’는 단서를 받고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즉흥적으로 앞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어가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드는 데에는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수정은 꼼꼼하게. 학교 곳곳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남해초 이야기천재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 이야기천재들의 인어 이야기

### 이야기1. 우린 안 될 사이

작가/연출/연기: 연주, 송현, 우영, 수민

바닷속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조인어는 편찮으신 엄마를 위해 치료약인 당근을 찾으려 육지로 올라왔다. 하지만 당근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인어는 학교를 헤매게 된다. 바로 그때 학교 육상부 친구들에게 인어는 발견되고 말았고...



모든 6학년 육상부 친구들이 인어를 잡으려고 할 때 유일하게 류새우만이 조인어를 보호하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조인어는 사람들에게 잡혀 연구소에 끌려가 해부 당할 위기에 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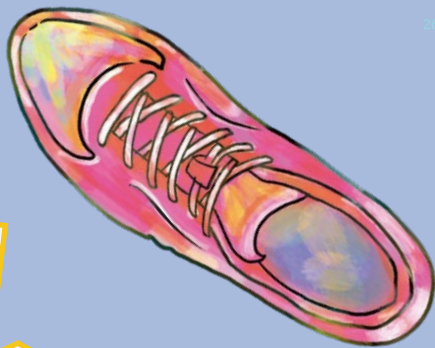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조인어의 아버지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마을을 물에 잠기게 하려고 했다. 해부당하기 직전 간신히 연구소를 탈출한 조인어는 류새우에게 달려가 “우리 아빠가 이 마을을 물에 잠기게 할 거야. 나 무배를 만들어!”라고 말해줬다. 마을은 끝내 물에 잠겼고, 둘은 나무배를 타고 다른 마을로 도망갔다.



다른 마을에 무사히 도착한 둘. 류새우는 조인어에게 고백했다. “내가 널 지켜줄게, 대신 넌...” 하지만 조인어의 “우리는 만날 수 없어...”라는 말은 둘은 류새우는, 조인어가 없는 세상은 살 필요가 없다며 물로 뛰어들었다. 이것을 알게 된 류새우의 아버지는 조인어의 아버지에게 류새우를 살려달라고 소원을 빌었고 그 결과 류새우는 진짜로 새우가 되어버렸다. 그 사실을 몰랐던 조인어는 류새우를 찾으러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둘은 서로 다시 만나게 됐지만 조인어는 새우가 된 류새우를 알아보지 못했다. 류새우 역시 새우로 변한 뒤 점점 기억이 사라지고 있었다. 새우가 인어에게 물었다. “넌 누구 찾고 있니?” 인어는 말했다. “나는 사실 나에게 고백했던 사람을 찾는 중이야.”



이제야 둘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새우는 파도에 멀리 휩쓸려 가버렸다. 인어는 돌고래와 함께 힘을 합쳐 새우를 구했다. 다시 만나게 된 둘은 육지로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결국 육지에서 호랑이를 만나 사망하고 만다.



## 이야기2. 우린 낯설지만 친구 사이

작가/연출/연기: 소영, 정민, 효원, 새연

모든 곳이 바다로 뒤덮여 있는 남해에 인어가 나타났다! 인어는 육지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닷가에서 육상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깜짝 놀란 인어는 친구들에게 물을 뿌리고 다시 물속으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친구였던 니모마저 떠난 후 인어는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육지의 육상부 친구들을 다시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기를 부탁했죠.



마침 배가 고팠던 인어와 육상부 친구들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붉은 새우를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인어는 새우 먹는 법을 육상부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난 꼬리부터 먹는 걸 좋아해! 새우의 긴 수염을 먼저 없애고, 껍질은 딱딱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 인어와 친구들은 붉은 새우를 맛있게 먹었어요.



인어는 달리기를 잘하는 육상부 친구들이 신기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인어에게 달리기를 가르쳐주기로 했죠. “인어는 햇볕에 있으면 타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늘에서 달리! 달리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인어는 친구들을 따라 열심히 달려보았지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괜찮아. 우리가 내일 또 알려줄게. 그럼 이제 네가 우리에게 수영을 가르쳐 줄래?” 인어와 육상부는 서로에게 자신이 잘하는 것을 가르쳐 주며 친구가 되어갔어요.



우리는 서로 다르니까 각자 소개를 해보자! 인어와 친구들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 우리가 정말 다르구나.” 인어와 육상부 친구들은 서로 다른 모습에 흥미를 느끼며 친구가 되길 참 잘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친구 사이에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나 봐요. 하루는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뭐! 저리 가!” 한참을 싸우던 인어와 육상부 친구들은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죠. “배고프다. 우리 새우 먹으러 갈까? 오늘은 맛있게 먹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줄게.” 인어에 말에 모두 “좋아!”라고 외쳤어요. 그렇게 인어와 육상부 친구들은 언제 싸웠냐는 듯이 손을 맞잡고 새우를 먹으러 갔습니다.



# 자갈초

## 육상천재가 세월초, 남해초 천재들에게



나는 자갈초 육상부 **이은수**야. 컴퓨터로 양평 사는 세월초 6학년 친구들을 만났을 땐, 어... 사실 좀 낯설고 어색하긴 했어. 그래도 너희들 만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소개하는 연습도 미리 하고, 세월초 친구들 얘기도 미리부터 듣고. 본심의 방에서 친구들이 내 얘길 열심히 들어줘서 엄청 좋았어. 현열이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긴장도 됐었는데 맞는 조언이긴 해. 그리고 술이는 나한테 공감 많이 해 줘서 좋았어.



나는 **박정민**. 남해초 연극반 만났을 때 보니 나랑 이름이 같은 친구가 있더라. 멋져 보이고 싶어서 티는 못 났는데 엄청 반가웠어. 사실 남해초 얘기는 그 전부터 듣고 있었어. 개네가 상상해서 그린 인어 그림도 살짝 봤었다? 목에 뱃줄이 걸려서 붙잡힌 인어는 불쌍했지만, 왕좌에 앉아 있는 인어도 있고 멋지더라. 사실 우리 인어는 좀 이상하잖아? 그리고 남해초가 만든 인어 이야기도 들었거든? 그래, 스포츠맨 정신으로 인정할게. 이야기천재 맞네.



안녕! 나는 **변호준**. 남해초 친구들한테 우리 자갈초에 놀러오라고 영상 초대장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때도 애들이 날 안 끼워줄려고 하더라고. 아 진짜! 그래도 나중에는 같이 진짜 열심히 찍긴 했어. 근데 너무 오래 찍어서 해가 저서 좀 추웠어. 아! 그리고 그때 만난 세월초 친구들 생각도 많이 나. 같이 찍고 싶다. 나 연습 많이 했는데. 규혁이네 강아지 겨울이도 보고 싶다. 모두모두 보고 싶다!

공연팀이 세월초와 남해초의 십대 초반 청소년들과 만나기 위해 준비한 일들, 만나서 경험했던 일들을 <발가락 육상천재> 자갈초 육상부의 목소리로 재구성했습니다.



나는 상우야. **김상우**. 세월초 친구들이랑 본심의 방에서 만난 후에, 연극 선생님이 평소 우리 자갈초 애들끼리 하는 얘기들을 전해줬었다. 그래서 세월초 친구들이 그걸 돌아가면서 읽어봤대. 아, 부끄럽게... 노는 모습 들려서 창피하기도 한데 우리에게 대해서 미리 알았으면 본심의 방에서 더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서 그런 좀 아쉬워. 본심의 방에서 만난 친구들이 왠지 어른스럽고 말수도 좀 적어서 나중까지 나를 기억하려나 생각했거든. 근데 우리가 한 말 다 기억하고 있었다며? 나도 너희들이 조언해 준 거 계속 생각해 보고 있어. 그래서 고마워.



나? 난 **인어**. 그 초대 영상에 나도 나왔어! 10월 10일에 남해초랑 같이 만나서 신비한 동물 몸으로 표현하기 게임도 하고, 여기 자갈초 애들 평소 놀 때랑 내가 호준이를 처음 만난 날도 보여줬어. 그거 영상으로 보여줘서 이해가 되려나 좀 걱정했는데 남해초는 단박에 우릴 다 파악하더라. 근데 너희들... 왜 내가 잡아먹힐 거라고 생각해? 나 횡감 아니야. 나 인어야! 아, 그리고 세월초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인호'라고 가명 써서 미안해. 너희가 너무 놀랄까 봐 그랬어. 남해초, 세월초 너희들 진짜로 우리 보러 와! 팔로 미 팔로 미!

## 예술교육 활동개요

### 남해초등학교

- 9월 7일(월) 첫 만남 및 소개하기\_서로 다른 천재들이 모였다!
- 9월 14일(월) '인어' 상상하기\_나만의 인어는 어떤 모습일까?
- 9월 21일(월) '인어'가 등장하는 이야기 짓기\_로맨스와 막장 드라마의 사이, 흥미진진한 인어 이야기가 탄생했다!
- 9월 28일(월) 학교 공간에서 펼쳐지는 인어 이야기\_남해초등학교에 인어가 나타났다!

### 세월초등학교

- 9월 11일(금) 첫만남 및 소개하기\_서로 다른 천재들이 모였다!
- 9월 18일(금) 자갈초 육상부 친구들 고민 상담해주기\_여러분을 '본심의 방'으로 초대합니다.
- 9월 25일(금) 인물 관계도 그려보기\_자갈초 육상부 친구들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할까?

### 오른 리허설

- 10월 10일(토) 발가락 육상천재의 연습실 초대\_남해초등학교 학생들의 온라인 방문

공연을 준비하던 시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발가락 육상천재> 예술교육팀은 온라인으로 공연연계 청소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의 장점을 활용하여 일반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을 만났던 것에서 벗어나 보기도 했습니다. <발가락 육상천재>와 함께 한 십대 초반 청소년들은 경상남도 남해시에 있는 남해초등학교 연극반 학생들과 경기도 양평시에 있는 세월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두 학교의 '연극천재'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얼굴 가까이 마주 대고 활동한 <발가락 육상천재> 청소년 워크숍을 소개합니다. 아래 모든 활동은 온라인 화상회의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발가락 육상천재> 공연연계 청소년 워크숍에 함께 해 주신 청소년과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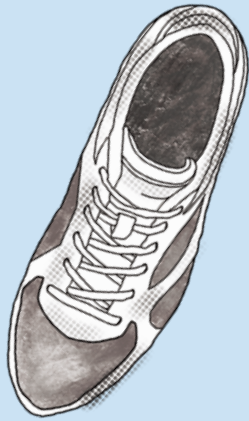
- 경남 남해초등학교 연극반  
김효원, 류정민, 박새연, 박소영, 이송현, 조수민, 조연주, 최우영, 그리고 이혜진 선생님, 오주석 선생님
- 양평 세월초등학교 6학년 하늘반  
강수연, 김동희, 이솔, 이윤구, 이정주, 임현호, 정규혁, 조엘림, 진현준, 최현열, 그리고 오동진 선생님
- <발가락 육상천재> 예술교육팀  
교육감독 손서희, 드라마리더 박영, 드라마협력 박진선, 기록 김애은, 총괄운영 최은정
- 내용 구성과 작성  
손서희, 박영, 박진선



오 프렌,  
인어가 내 발가락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오 프렌,  
인어가 내 친구들 발가락까지 싹 다 가져가 버렸네.

Where's my toe,  
Where's my toe,  
Where's my toe.



30



그림. 김효원(남해초등학교)

31



내 신발엔 돌이 왜 이렇게 자주 들어가지?



## 스태프

### 작

**김연주 Kim Yeon-ju**

\*프로필 11페이지

### 연출

**서충식 Seo Chung-sik**

극단 주변인들 상임연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와 교수

연극 〈레슬링 시즌〉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안티고네를 연습하다〉

〈절차상의 오류들〉 〈실수연발〉

〈국물잇사옵니다〉 〈고백〉 〈죽음, 혹은

아님〉 〈최종연접〉 〈또욱 독, 누구십니까〉

〈이야기 한상 차려주소〉 외

### 드라마투르크

**김옥란 Kim Ock-ran**

\*프로필 19페이지

### 무대

**신승렬 Shin Seung-ryul**

연극 〈동시대인〉 〈브라보, 염사장〉

〈마터(MARTYR)〉 〈테라피〉

〈자전거도독헬멧을쓴소년〉 〈고독한 목록〉

〈호신술〉 〈말들의 집〉 〈미국아버지〉

〈간혹, 기적을 일으킨 사람〉 〈글로리아〉

〈생각은 자유〉 〈널 위한 날 위한 너〉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외

### 조명

**이현지 Lee Hyun-ji**

연극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국물

잇사옵니다〉 〈레슬링 시즌〉 외

음악극 〈적로〉 〈조강 환타지아〉

무용 〈푸가 FUGUE〉

다원 〈포스트 아파트〉

### 의상

**김민우 Kim Min-woo**

연극 〈의자 고치는 여인〉

〈조치원 해문이〉 외

뮤지컬 〈짱〉 〈타이거〉

### 소품

**이은경(EK) Lee Eun-kyung**

연극 〈왕서개 이야기〉 〈붉은 낙엽〉

〈아카시아와, 아카시아를 삼키는 것〉

〈2020/2019 영지〉 〈조치원 해문이〉

〈레일을 따라 붉은 칸나의 바다로〉

〈자전거도독헬멧을쓴소년〉 〈닭꾸우스〉

〈데미안 라이브〉 〈위험한 실험실 B-123〉

〈우산 도둑〉 〈드림 타임〉 외

뮤지컬 〈앤ANNE〉 〈야조, 왕의길〉

무용 〈기영양진〉 〈착한사람〉

### 작곡·음악

**조용경 Cho Yong-kyoung**

연극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절차상의

오류들〉 〈용서〉 〈이상한 동거〉

〈세익스피어의 연가〉 〈레테의 강〉 〈고백〉

〈개가 된 사나이〉 〈메이머홀드 변주〉

〈우르파인〉 외

뮤지컬 〈짱〉 〈괜찮아〉

KBS2 TV 〈코파반장의 동화 수사대〉

EBS 〈가족뮤지컬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케이크〉 외

### 음향

**안창용 An Chang-yong**

연극 〈신의 아그네스〉 〈국화꽃 향기〉

〈살라메아의 시장〉 〈햄릿아바타〉 외

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 〈미드나잇

블루〉 〈머더 포 투〉 〈덕혜옹주〉 〈미녀와

야수〉 외

### 움직임

**남궁호 Nam Geung-ho**

연극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실수연발〉

〈국물잇사옵니다〉 〈풍선〉 외

거리극 〈달걀구신〉 〈로빈슨크루섬〉

〈물질〉 〈요리의 출구〉 외

마임 〈2k〉 〈우리〉 〈프랑켄슈타인〉

〈오늘같은 날〉 〈4-59〉 외

### 조연출

**윤성우 Yoon Sung-woo**

연극 [배우] 〈엘프들의 오후〉

〈아이스울프〉 〈말괄량이 삐삐 오늘도

맑음〉

[작곡] 〈헬청춘〉 〈무인도 탈출기〉

### 교육감독

**손서희 Sohn Seo-hee**

연극 〈2020/2019 영지〉

〈자전거도독헬멧을쓴소년〉 〈소년이

그랬다〉 〈겨울 이야기〉 〈좋아하고있어〉

### 예술교육 드라마 리더

**박영 Park young**

예술교육 〈2020 영지〉

영화 〈우리들〉 〈우리집〉 어린이배우와

함께 하는 연극놀이 강사

### 예술교육 드라마 협력

**박진선 Park Jin-sun**

연극 [배우] 〈고요의 울림〉 〈사계의

색깔을 찾아서〉 〈오늘이〉 〈말괄량이 삐삐

오늘도 맑음〉

만드는 사람들

출연  
김기현, 류석호, 박창욱, 임모윤, 홍사빈

스태프  
작. 김연주  
연출. 서충식  
드라마투르기. 김옥란

무대. 신승렬  
조명. 이현지  
의상. 김민우  
소품. 이은경  
작곡·음악. 조용경  
음향. 안창용  
움직임. 남궁호  
조연출. 윤성우

교육감독. 손서희  
드라마 리더. 박영  
드라마 협력. 박진선  
예술교육 기록. 김애은  
예술교육 기획. 최은정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감독. 신승호  
제작감독. 경은주  
조명감독. 임수연  
음향감독. 이병석  
의상감독. 박지수

무대조감독. 김민주  
조명오퍼. 김세희  
음향오퍼. 이병석  
무대크루. 최정환, 이미현  
의상진행. 박희정  
음향팀. 김성식, 장재혁  
조명 어시스턴트. 김효민  
조명팀. 민동화, 김병희, 이상민, 조성준,  
양재혁, 김지은, 이상진  
무대제작. 쇼먼트  
이사 김상덕 / 실장 김진성  
팀장 김나리, 고현종, 박기덕  
팀원 박동민, 남기상, 김인권, 박정훈,  
박광석, 김태환, 콕트인, 김득희  
무대전선. 제이컴(J-COM) (대표: 전 혁)  
의상제작. 디세뇨 (대표: 황연희)  
소품제작. 이케이코스름 (대표: 이은경)

메인 디자인. 페이퍼프레스 (대표:박신우)  
응용 디자인. RE01(대표: 김리원)  
홍보/공연/연습사진. 그린비 (장성용,  
정원균)  
온라인 생중계 및 기록영상. 율하우스  
옥외광고. 영기획  
홍보를 인쇄. 인타임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이정현, 조영채, 이승이  
마케팅. 김태은, 박보영, 오지수, 김수현,  
변정원, 이경선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7기. 김가은,  
김현기, 심하린, 이화승, 정예림, 현석현  
티켓. 김보전, 이현아, 김보배, 김효진  
티켓안내원. 권소담, 어주희  
하우스 매니저. 이기쁨, 김나래  
하우스 안내원. 정진영, 이지은, 이혜조,  
김소희, 이민경, 임지은, 송 솔, 황지수,  
김성혜, 송영은, 배연준, 김지수, 박우은,  
송민경

예술교육 참여  
남해초등학교 연극반. 김효원, 류정민,  
박새연, 박소영, 이승현, 조수민, 조연주,  
최우영 (협력교사. 이혜진, 오주석)  
세월초등학교 6학년 하늬반. 강수연,  
김동희, 이솔, 이윤구, 이정주, 임현호,  
정규혁, 조엘림, 진현준, 최현열  
(협력교사. 오동진)

프로그래북 제작  
기획/편집. 김미선, 나수경  
그림. 김성제  
디자인. 데저트팝(대표. 양옴름)  
출거리 번역. 알리사 김  
인쇄. 마림아트

제작총괄. 김성제  
프로듀서. 김미선  
제작진행. 나수경

제작.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재단법인 국립극단

재단법인 국립극단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이성열 이사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김명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심재찬 이사 연출가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김영수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혁수 감사 삼척회계법인 상무이사

단장 겸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작품개발실  
정명주 실장  
한나래 작품개발·학술  
조유림 작품개발·출판  
이지연 아카이브  
손은정 청년인턴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김옥경 김철순 정채영 심소연 박소영  
이정민 지영림 프로듀서  
박서영 청년인턴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이정현 이승이 최윤영 홍보  
박보영 김태은 오지수 김수현  
변정원 조영채 마케팅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효진 티켓  
김나래 이기쁨 하우스매니저  
이경선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김무석 팀장  
신승호 김정빈 나혜민 김태연 무대감독  
홍영진 이승수 경은주 무대제작감독  
음향인 이병석 박정현 장도희 음향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박지수 무대의상감독  
백혜원 김민주 김세희 연수단원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정병욱 시설·용역·공사  
이민희 인사·복무·복지후생  
박예원 이사회·제도·교육  
김시내 비서·윤리경영·경영공시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손준형 연구원  
최은정 예술교육  
김연경 작품개발·운영  
권령아 연수단원

2020-2021 시즌단원  
강현우 고애리 권은혜 김명기 김보나  
김세환 김예림 문예주 박소연 박용우  
송석근 이상홍 이원준 이유진

#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주차공간이  
부족해요.

2019. 2.  
〈자기 앞의 생〉 관객 의견



극장 주변  
제휴 주차장 마련

2019. 7.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레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2019. 5.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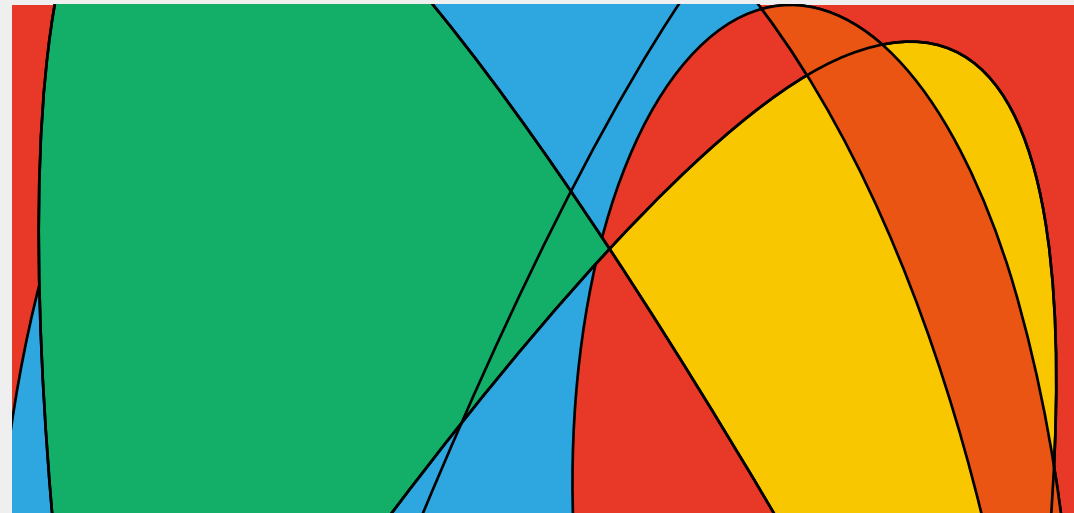
2018. 8.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2020 청소년극 창작벨트 낭독공연



36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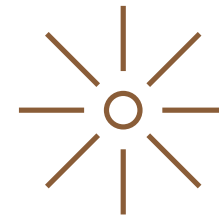
2020.12.4-6  
12.11-13



소극장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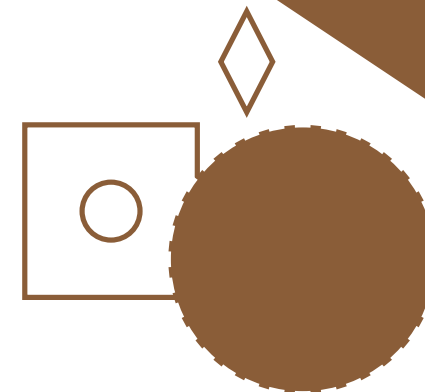
김윤영	×	윤혜	숙
김준호	×	설유	진
안정민	×	이래	은
배해률	×	윤성	호
박지선	×	신재	훈
홍기황	×	송정	안





그 시작과  
인식의 변화를  
바로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사람의 근원을  
찾는 것은 어린 시절을  
다시 만나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그 태생부터 다가가는  
어린이청소년극.  
예술이 일상으로,  
일상이 예술로의 첫 걸음.  
즐겁고, 쉽고, 깊게!



## 우리는 어린이청소년극을 만듭니다

###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소장 김성제)는 어린이청소년극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개발과 연구를 목적으로 2011년 5월, 문을 열었다.

청소년 관객층에 대한 연구와 청소년극 제작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청소년극의 새로운 방향성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극 제작 및 지역공연, 작품개발 및 연구가 있으며, 창작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극 창작벨트〉, 〈작은극장〉, 예술가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청소년예술가탐색전〉 등이 있다. 주요 청소년극 레퍼토리로 는 〈소년이그랬다〉, 〈레슬링 시즌〉, 〈빨간 버스〉, 〈타조 소년들〉,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비행소년 KW4839〉, 〈죽고 싶지 않아〉 등이 있다.

## 국립극단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 (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gil, Jung-gu,  
Seoul, Korea (04534)

